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내외 경제 전망과 기업의 대응 전략*

The Economic Outlook for COVID Era and Crisis Response Strategies for Business

주원**

I. 개요

세상은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멀리 본다면 이 또한 극복될 것이지만 당분간 전염병에 대한 공포가 경제 심리를 지배할 것이다. 2020년 한 해 동안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 모두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은 분명하다. 반면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경제위기를 치유하려는 노력들도 나타났다. 이에 많은 부분들이 그 속도가 매우 느리지만 회복되는 과정에 있다. 문제는 당분간은 바이러스가 경제를 지배할 것이고 COVID-19 (COrona Virus Disease 19,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이전 경제 활력을 찾기는 어렵다는 데에 있다. 경험해 보지 못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많은 경제 주체들이 여전히 힘들어한다. 과연 우리는 사상 초유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경험이 없기에 우리가 벤치 마크할 수 있는 사례도 없다. 오직 직관과 고려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동원해야 지금 이 위기의 실체와 방향성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분석의 한계는 분명히 있지만 세계 경제 여건을 조망해 보고 한국 경제가 어떤 경로를 가지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응해 갈 것인지를 가늠해 보았다. 또한, 우리 기업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극대화된 불확실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으며, 대전환기를 맞은 시장 시스템의 변혁기에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모색해 보았다.

* 이 글은 2020년 7월 6일(월)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가 주최한 2020년 하반기 정책세미나 ‘포스트 코로나 경제지형 변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서 발표한 내용을 기반으로 최근 경제 상황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사대우), E-mail: juwon@hri.co.kr.

II. 대외 여건 전망

1. 글로벌 경제 방향성 조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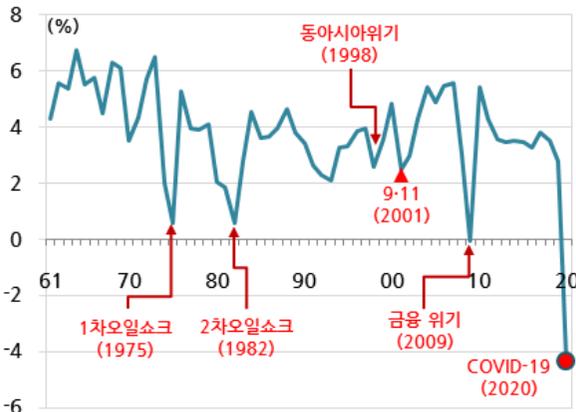
이미 COVID-19의 충격 이전부터 글로벌 경제의 체력은 상당 부분 약화되었다고 평가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직후로 세계 경제가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기 이후부터 팬데믹(pandemic) 이전 약 10년 동안 세계 경제의 특징은 저성장과 교역 위축이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금융위기를 전후로 세계 경제의 성장 동력이 상실된 것이 핵심이라 생각된다. 산업적 측면에서 90년대 이후 성장 동력이었던 ICT 산업의 성숙도가 높아지면서 이미 혁신의 강도는 약화되었다. 또 하나의 요인은 중국이다. 2001년 중국이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면서 거대 시장이 열린 이후, 중국의 빠른 공업화가 세계 경제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본격화된 국산화 정책으로 중국의 성장 견인력이 한계를 맞이했다. 이는 중간재 교역의 침체를 통해 글로벌 교역탄성치(교역증가율/경제성장률)의 하락으로 이어졌다. 더구나 최근에 와서는 G2(Great 2), 즉 미국과 중국 간 관세전쟁이 세계 경제 성장을 더 끌어내렸다. 그래서 COVID-19라는 전염병이 발생할 무렵에는 이미 세계 경제의 체력과 면역력은 고갈되어 있었다고 생각된다.

2020년의 글로벌 경제 상황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구분될 수 있다. 우선 상반기는 COVID-19의 팬데믹과 이에 따르는 봉쇄조치로 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경제위기가 발생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2019년 12월 31일 중국 후베이성(湖北省) 우한시(武汉市)에서 집단 폐렴 사례가 보고된 이후, 2020년 1월 9일 그 원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에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는 1월 30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전염병의 확산세가 거세지자 3월 11일에는 팬데믹을 선언했다. 1948년 WHO가 발족한 이후 팬데믹이 선언된 경우는 1968년의 홍콩 독감과 2009년의 신종플루에 이번이 세 번째이다. 그러나 팬데믹 자체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사람 간 접촉에 의해 전염되는 현상을 차단하여 팬데믹을 방어하기 위한 주요국의 대규모 봉쇄조치(great lock down, 실제 지난 4월 IMF 보고서의 제목이다.)가 세계 경제를 불황에 빠지게 했다. 2020년 상반기 세계 경제의 위기는 봉쇄조치로 시작되었다. 하반기에 들어서도 여전히 세계 경제의 중심인 미국, 유럽 등에 이어 신흥시장도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국가들이 봉쇄조치의 강도를 낮추었다. 그 이유는 봉쇄조치 지속에 따른 국민의 경제적 빈곤을 방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여하튼 봉쇄조치가 완화되면서 많은 국가들이 ‘V’자형은 아니지만 완만하게나마 회복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2020년 연간으로 보면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불황을 겪었다고 회고된다. 세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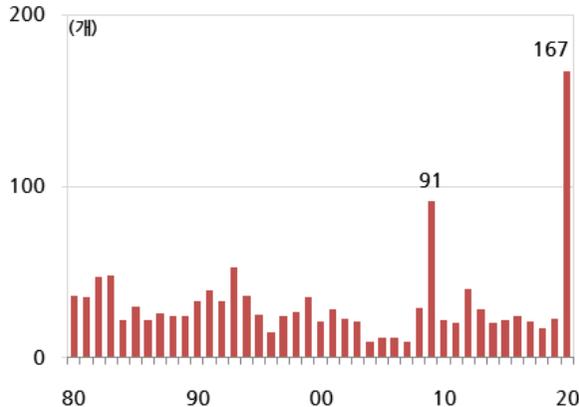
행(World Bank; 2020)은 이번 COVID-19 경제위기를 1945~46년(전쟁특수 소멸로 인한 불황)침체 이후 가장 심각한 불황으로 판단한다(<그림 1> 참조).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2020b)의 전망에 따르면 2020년 역성장(마이너스 경제성장률) 국가 수는 167개국(195개국 중 86%)으로 금융위기 때의 91개국보다 훨씬 많다(<그림 2> 참조). 또한 동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4.4%로 2019년의 2.8%보다 7.2% 포인트나 추락한 숫자이다. 한편,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은 2019년 1.7%에서 2020년 -5.8%로 급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개도국·신흥시장도 같은 기간 3.7%에서 -3.3%로 하락이 예상된다.

<그림 1> 세계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World Bank, IMF 통계를 이용하여 작성.

<그림 2> 연도별 역성장 국가 수 추이



자료: IMF(2020b)을 이용하여 작성.

2021년 글로벌 경제의 향방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이번 위기가 실물경제나 금융시장

에서 유발된 것이라면 경제 전망에 상당히 좁혀진 폭으로 암묵적인 컨센서스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전염병이 발생한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에도 너무나 다양한 주장들이 존재한다. 그래도 많은 연구자들은 2021년 세계 경제는 2020년의 충격에 대한 기술적 반등력을 가질 것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이에 2021년 글로벌 경제의 향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핵심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COVID-19의 팬데믹이 지속되느냐의 여부이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방역 시스템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중국과 한국은 안정적 국면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가끔은 신규확진자 수가 갑자기 증가하는 시기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두 나라의 상황을 보면 방역과 경제가 비교적 안정된 수준에서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은 아직 불확실하다. 특히 2020년 겨울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은 2차 유행기가 고비로 판단된다. 사정이 그렇다면 2021년 세계 경제는 여전히 COVID-19의 지배하에 놓일 것이 확실시된다. 2021년 내 효과가 확실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된다면 세계 경제는 강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점도 분명하다. 다만,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이 없더라도 봉쇄조치는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방향을 가질 것이다.

두 번째의 결정 요인은 G2의 세계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능력이다. 지금 세계 경제의 어려움은 절대 수요의 부족이다. 정상적인 성장 궤도로 진입하기까지 시장 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는 동력이 있어야 한다.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회복에 큰 역할을 했던 G2에 이번에도 기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헤게모니를 중국에 빼앗길 수 없다는 미국 정부의 생각은 변함이 없다. 따라서 앞으로도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전방위적 견제가 지속될 것이다. 만에 하나 미·중 간에 2차 무역전쟁이 발생한다면 2021년에 예상했던 그나마의 경기 반등도 기대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 경제를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다. COVID-19의 출현으로 온택트(On + Non contact) 시장이 커짐에 따라 기술적 요인들이 더욱 강조되는 4차 산업혁명은 유일한 불황 탈출구일 수 있다. 확실히 이 방향이라는 판단이 대세가 된다면 세계적으로 투자 열풍이 일 것이고 그것 자체가 세계 경제 회복의 추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을 기대하면서도 동시에 의구심을 가지는 것도 사실이다. 분명 상당한 수준의 기술적 발전은 이루어졌고 일부 분야에 있어서는 시장의 성장도 목도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사회 전반을 변화시키는 단계에 미치지 못한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4차 산업혁명은 기존 경제 시스템에 변혁을 일으킬만한 근본적인 힘이 없고, 결국은 ICT의 또 다른 변형일 뿐이라는 회의적 시각도 존재한다. 그래서 2021년은 4차 산업혁명이 세계 경제 성장을 견인하여 그 잠재력을 증명해야 할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2. 주요국 경제 전망

2021년 세계 경제의 대체적 흐름은 강하지는 않지만 회복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을 높게 본다. 주요국 중 미국 경제는 지난 2020년 2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하반기에 완만하게 회복 중이다. 2021년에도 그러한 회복세는 이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이 고용시장 쪽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는 2020년 3월 말경으로 판단된다. 신규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COVID-19 이전 20만 명 내외에서 3월 4주 차에 약 690만 건으로 급증하였었다. 이는 이전 최다 기록인 2차 오일쇼크(1982년 10월)의 약 69만 건,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의 65만 건 대비 10배나 많은 수준이다. 다만, 이후 청구 건수가 감소하고 실업률이 하락하면서 고용시장은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이다. 특히, 자산시장의 경우에는 2020년 상반기 중 일시적인 폭락이 있었지만 이후 즉각적으로 반등하면서 가계의 자산 소득 측면에서 구매력에 큰 훼손이 없었던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최근 IMF(2020b) 전망에 따르면 미국 경제성장률은 2020년 -4.3%에서 2021년 3.1%로 상승할 전망이다.

중국은 2020년 중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V’자형에 가까운 강한 반등을 보여 주었다. 2020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6.8%의 역성장(逆成長,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2분기와 3분기에 각각 3.2% 및 4.9%의 강한 증가세로 반전되었다. 이에 2020년 연간 경제성장률은 2% 내외 수준은 기록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경제성장률은 지난 문화대혁명 직후인 1976년(-1.6%)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예측된다. 한편, 2021년은 2020년의 침체에 대한 반등이 예상되어 IMF 예측치 기준으로 8.2%가 전망된다. 이후 중국의 중장기 성장 경로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5~6%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 예상된다.

유로존은 그 회복세가 상대적으로 더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가장 큰 이유는 유로존 핵심국가 중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산업 구조적 특징 때문이다. COVID-19로 인한 여행 수요가 단기간 내 회복되기는 어려워 보이는 가운데, 유럽 국가들 대부분이 관광 산업 비중이 높다는 점이 그것이다. 특히, 최근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의 국가에서 COVID-19가 재창궐하여 봉쇄조치가 강화되는 움직임이 유로존 경제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IMF(2020b)에 따르면 유로존의 경제성장률은 2020년 -8.3%에서 2021년 5.2%로 반등은 하겠지만, GDP 규모로는 2021년에도 COVID-19 직전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개별 국가에서 온도 차가 전망된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2020년 -6.0%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관광산업 또는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프랑스(-9.8%), 이탈리아(-10.6%) 및 스페인(-12.8%)의 불황 강도가 더 극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들 국가 모두 2021년에는 기술적 반등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끝으로 신흥시장의 경우에도 2020년 예외 없이 성장률 급락이 전망되나, 2021년에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이 예상된다. 신흥국 전체의 경제성장률은 2019년 3.7%에서 2020년에는 -3.3%로 하락하겠으나, 2021년에는 2020년의 성장률 하락 폭을 충분히 만회하는 수준인 6.0%의 성장세가 예상된다. 특히, 신흥국 중에서 자원 수출국을 제외한 국가들의 경우 회복세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3. 가격 변수 동향 및 전망

경제의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은 쉽게 안정화되기는 어렵다. 특히, COVID-19와 관련된 이슈가 제기될 때마다 가격 변수의 급등락 현상이 종종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중장기 추세로 보면 많은 가격 변수들이 2021년 이후부터는 변동성도 낮아지고, 느리지만 COVID-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게 보일 전망이다. 우선 금리의 경우 현재 국제 금리를 선도하고 있는 미국 FED(Federal Reserve Board,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FOMC(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결정하는 정책금리인 연방기금금리(federal fund rate)의 향방이 관건이다. 미 연준은 2019년 경기 안정화를 위해 3번의 연방기금금리를 인하한 데 이어, 2020년에 들어서는 COVID-19 발 경제위기에 대응하고자 3월 3일과 3월 15일에 걸쳐 제로 금리 수준(0~0.25%)으로 더 떨어뜨렸다. 최근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2020)에 따르면 최소 2021년까지는 제로금리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예상외로 경기 회복세가 강하다고 판단되면 인플레이를 막고자 전격적인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

원/달러 환율은 2020년 상반기에 큰 변동성을 보였다. COVID-19로 인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으로 원화는 달러화에 대해 급격한 약세를 보였다. 그러나 하반기에 들어 수출이 개선되고 시장에 내성이 생기면서 1,100원 대의 안정적 흐름이 이어졌다. 2021년에는 풍부한 달러화 유동성과 한국 경제 펀더멘털의 상대적 견고성 등으로 원화가 달러화에 대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2020년 국제 유가는 배럴당 20달러 내외 수준까지 급락한 이후 최근 40달러 내외 수준까지 회복되었다. 유가 약세의 원인은 COVID-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제 위기로 원유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였기 때문이다. 2021년에는 원유 수요가 2020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COVID-19 확산 직전인 2019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40~50달러 범위에서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Ⅲ. 한국 경제의 향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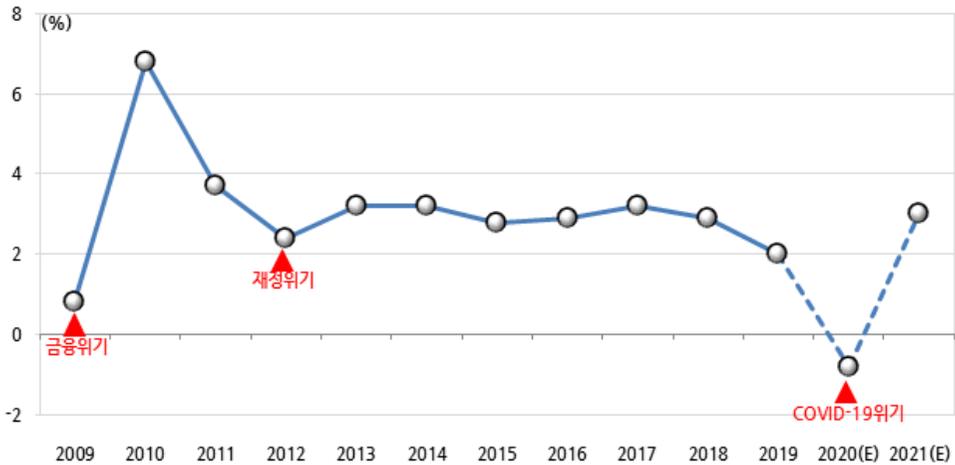
1. 한국 경제 향방의 결정 요인

향후 한국 경제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은 무엇보다도 국내 COVID-19 확산 여부이다. 우리도 해외와 같은 봉쇄조치는 아니더라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느슨한 봉쇄조치의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향후 국내 COVID-19의 안정적 추세가 자리 잡을 수 있는 지가 2021년 경기 방향성을 결정지을 것이다. 둘째, 정부의 경제정책이다. 민간 부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공공 부문이 경제의 추동력이 될 수밖에 없다. 주된 축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다. 2020년 이미 사상 최대 규모의 추경(1차~4차 약 69조 원)에 이어 2021년에도 대규모의 재정 확대가 계획되어 있다. 또한, 통화정책은 완화적 기조가 상당 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유동성이 실물 경기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이다. 마치 항생제를 오래 사용하면 내성이 생겨 치료 효과가 크게 떨어지듯이, 이제 정부의 경기부양책도 해를 넘기게 되면서 돈을 풀어도 민간이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셋째, 우리 수출 경기와 연관성이 높은 글로벌 경제의 회복 여부이다. 우리 제품을 사줄 수 있는 세계 시장 수요가 관건인데, 우리의 가장 큰 교역 시장인 중국 경제가 2020년 1분기를 바닥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의 상황은 아직도 불안정하며, 남미, 인도 등 거대 경제권들의 확진자 수가 여전히 많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마지막으로, 미·중 2차 무역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다. 2020년 초만 해도 미·중 간 합의안이 서명되면서 1차 무역전쟁이 휴전에 돌입했다. 그러나, COVID-19의 확산으로 정치적 곤궁에 몰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때리기에 나서면서 2차 무역전쟁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시각은 미국 내 공화당과 민주당이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미국의 대 중국 정책 기조가 큰 변화를 가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아직 상황은 더 지켜봐야 하겠으나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가 강화되면서 2차 무역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2. 2021년 한국 경제의 향방

2020년 상반기 한국 경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경제성장률은 2020년 1분기 전기대비 -1.3%에 이어 2분기에도 -3.2%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분기(-6.8%)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다행히 3분기에 들어 1.9%의 반등세를 보였다. 한편 2021년 한국 경제는 내수와 외수가 성장을 얼마나 견인하느냐에 달려 있다. 현재는 민간소비(내수) 침체 강도가 완화되는 가운데 수출(외수)이 미약하나마 회복

<그림 3> 한국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자료: 한국은행(실적) 및 현대경제연구원(전망)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추세라면 ‘V’자형은 아니더라도 비대칭 ‘U’자형 회복(침체 기간 보다 회복 기간이 더 긴 추세)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제 북반구가 겨울에 접어들면서 COVID-19가 재창궐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2021년에도 한국 경제의 어려움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부문별로 보면 우선 민간소비의 침체가 심각하다. COVID-19의 영향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등 대면 소비는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다. 반면, 비대면 소비인 인터넷쇼핑, 홈쇼핑 등은 상대적으로 호조를 지속 중이다. 2020년 민간소비는 전년에 비해 큰 폭의 감소가 불가피해 보인다. 2021년에는 경제 상황에 불확실성이 완화되어 소비 심리가 완만하게 개선되면서 민간소비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될 것이라 예상된다.

설비투자는 최근까지도 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 투자가 침체를 지속하고 있다. 2020년 상반기 중 일시적으로 ICT 투자가 증가했으나 이후 대부분 산업에서는 계획되었던 투자가 취소되거나 연기되었다. 2021년에는 미뤄졌던 투자 확대가 예상되나, 경제 전체적으로 그 규모가 어느 정도 증가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핵심은 COVID-19의 팬데믹 지속 여부인데 세계 및 국내 시장이 정상화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큰 폭의 투자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 정부 부문에서 2025년까지 총 160조 원(국비 114조 1,000억 원)의 뉴딜 정책 관련 투자가 계획되어 있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민간 기업들이 과연 정부의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어느 정도의 마중물 투자를 생각하고 있을지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이다.

건설투자는 다른 부문에 비해서 큰 침체는 보이지 않고 있다. 건설업이 상대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영향을 덜 받는 측면도 있으나 무엇보다도 경기 부양을 위한 공공

및 토목(SOC) 부문의 수주 확대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건설투자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는 건축 및 민간 부문은 수주가 정체되는 모습이다. 한편, 2021년의 건설 투자는 회복 기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뉴딜 정책 중 일정 부분 공공 건설투자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건축 부문의 경우 최근 전방위적인 부동산 시장 규제가 주택 시장의 수요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반면 3기 신도시 건설 및 공공 주택 공급 확대 등의 긍정적 요인들도 있다. 따라서 2021년 전반적인 건설투자는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수출 경기는 침체 국면에 있었다고 평가된다. 수출은 2019년 전년대비 -10.4%의 감소세를 기록한 데 이어 2020년에도 -6% 내외의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2019년의 수출 감소는 미·중 간 무역전쟁 등에 기인한 바가 큰 반면, 2020년의 침체는 COVID-19에 따른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 때문이다. 2020년의 월별 수출 추이를 보면 2분기를 저점으로 경기가 반등하는 모습이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라면 향후 수출 경기는 완만하게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특히, 세계 경제가 아직 온전히 회복되지는 못했지만, 우리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 경기가 견고하고 최대 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비교적 선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2021년 수출 경기를 어둡게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IV. 기업의 대응 방안

대내외 경제가 모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경영 실적은 처참하다. 2020년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는 큰 폭의 실적 악화를 경험했다. 2021년에는 세계 및 한국 경제의 방향성이 반등 또는 회복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 환경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 들어서도 경제 활력의 수준은 코로나 이전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동시에 존재한다. 즉, 당분간 COVID-19가 사라지지 않으면서 경제 활동을 제약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은 2021년에도 기업들은 많은 리스크 요인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불황에서 회복 국면으로 넘어가는 경기 전환점에 적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COVID-19로 인한 경제·산업 지형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업은 첫째, ‘비상 경영’이라는 화두 아래 비용을 줄이고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내외 핵심 리스크 관리에 주력해야 한다. 격변의 시기에 많은 유니콘 기업들이 부상하지만, 반대로 많은 기업들이 쓰러진다. 새로운 것에 대한 투자, 그것이 신제품이든지 신시장이든 간에 투자의 근본적인 속성상 실패하면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 확실하지 않으면 대규모의 투자는 신중해야 한다. 둘째, 많은 산업에서 ‘죽음의 계곡(단기 유동성 고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정적 자금관리에 주력해야 한다. 경제위기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동성이다. 자산을 운용할 때 단기간 내 유동화가 가능한 부문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합리적이다. 특히, 부채의 장·단기 구조조정 등을 통해 기업 재무 전략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겠다. 셋째, 금융 및 원자재 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응해야 한다. 자산시장의 변동성이 여전히 높을 것이기 때문에 환율 및 원자재에 대한 적극적인 헤지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기업의 중요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 조달 시스템 구축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넷째, 글로벌 팬데믹의 확산 정도에 따른 경제 상황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시장의 향방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대내외 경제 상황의 급격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 문화와 생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다섯째, 팬데믹에 의한 불황 속에서도 뜨는 시장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선진국보다는 신흥시장에 더 많은 기회가 있고, 서비스 시장보다 상품 시장의 상황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시장 간 디커플링에 주목하고, 주력해야 할 시장과 버려야 할 시장에 대한 헤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여섯째, COVID-19가 촉발시키는 비대면 시장의 영향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예를 들어 홈쇼핑 및 인터넷쇼핑이 호조를 보이는 만큼,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매출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즉 비대면 시장이 기존 주력 사업 분야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기에, 이러한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 또한, 비대면 시장의 연관 기술은 대부분 4차 산업혁명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에 앞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산업 및 시장 트렌드에 대응하여 신사업 기회를 적극 확보할 필요가 있다. 다만, 언제나 그렇듯이 버블도 존재한다. ‘비대면’이라는 키워드에 과도하게 매몰될 경우, 오히려 기업이 위기에 빠질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일곱째, GVC(Global Value Chain,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가능성에 대응하여 주력 시장 다변화 및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미·중 간 정치 갈등에 따른 미·중 2차 무역전쟁 가능성, 일본의 대 한국 수출 규제, 팬데믹에 따른 생산 활동 차질 등이 동아시아 GVC를 바꾸어 놓을 수도 있다.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를 파악하고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신만의 전략이 필요할 때이다. 마지막으로, ‘큰 정부’라는 시대 흐름을 잘 읽어내야 한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더 확대될 것이다. 시장개입은 재정지출 급팽창, 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공정경쟁이라는 이름의 시장 규제, 근로자의 지위 향상, 뉴딜과 같은 정부 선도 사업 확대 등 다양한 양상을 보일 것이다. 이제는 제품만 잘 만들어서는 기업의 번영이 보장되지 않는다. 최근의 정치·사회적 흐름이 가져올 국내 경제·산업 구조의 지형 변화를 감지하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참고문헌

현대경제연구원(2020a), “회복국면 진입과 장기 침체의 갈림길에 선 한국경제-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20년 3분기),”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20-23(통권 887호).

_____(2020b), “2021년 한국 경제 전망”,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20-28 (통권 892호).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2020), “Minutes of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September 15-16, 2020,” Federal Reserve Board,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files/fomcminutes20200916.pdf>.

IMF(2020a),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0 - The Great Lockdown*, Washington, DC.

_____(2020b),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20 - A Long and Difficult Ascent*, Washington, DC.

OECD(2020), *OECD Economic Outlook, Volume 2020 Issue 1*, Paris.

World Bank(2020), *Global Economic Prospects, June 2020*, Washington, DC.